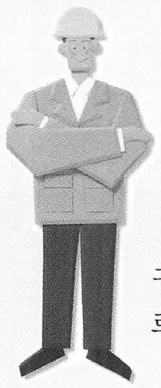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다정하게 배를 어루만져 주며 "엄마의 손이 약손이란다." 하시던 그 기억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과 같고 땅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어머니의 이러한 말없는 어루만져 주심은 바로 사랑의 기도이기도 한데 이것을 서양에서는 ROYAL TOUCH라고 부른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태양을 돌 듯이 우리의 심장은 60㎐의 CYCLE로 고동치며 온 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리듬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생명의 에너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리듬은 감정이나 질병에 의해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육체가 병들면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의 효과를 몇 백배 더해주기도 하며, 마음이 병들 때 사랑의 한마디가 흐트러진 감정을 바로 잡아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곤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잘살게 되면서부터 사랑의 어루만짐은 점점 사라져 가고 대신 로봇이 진단을 하고 컴퓨터가 처방을 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안전은 바로 이 사랑의 어루만짐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전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남의 실수로 내가 죽어야 하고, 나의 조그만 실수로 혹은 무관심으로 나 아닌 남의 인생을 뿌리채 짓밟아 버린다면, 비록 내가 살아도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안전을 한다면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말한 한마디가 남을 노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함으로써 재해를 가져오게도 하지만, 내가 말한 다정한 한마디가 고질병을 이겨내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 희망을 갖게 하고, 내가 어루만진 한번의 사랑의 손길이 삶의 용기를 줌으로써 직장생활은 명랑하고 보람된 일터가 될 것이다.

안전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이고, 기계를 사랑하는 기술이며, 직장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 말하고 어루만질 때 진정한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